

고전시가 교육의 가치론적 접근

: 이이(1536-1584)의 <고산구곡가>를 예로 하여

한 창 훈 (고려대)

<차례>

1. 서론
2. 고전시가 교육의 가치론적 접근
3. '고전시가' 교육과 고전시가에 '관한' 교육
4. 고전시가를 '통한' 교육
5. 결론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고전시가 교육을 가치론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그것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교육방법론을 제시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 논의를 위해, 여기에서는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이이(1536-1584)의 <고산구곡가>를 예증의 대상으로 삼는다.¹⁾

지금까지 문학교육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고전문학 교육의 상대적 개별성은 깊게 고려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고전문학 교육은 국어교육, 그 가운데에서도 문학교육이라

1) 필자는 근자에 고전시가 교육을 가치론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가교육의 가치론』(월인, 2001) 참조. 이번 논문은 이 연구서를 이으면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미진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첨가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는 범주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고전시가 교육은 고전소설 교육과 더불어 고전문학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고전문학은 현재와 시대적·문화적 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과 어떤 식이든지 관계를 맺고 있는 실체라는 점에서 마땅히 되새겨보고 교육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 고전시가 역시 고전문학의 한 갈래이므로 이러한 점은 동일하다. 문제는 이를 구체적으로 개념화하고, 실제적인 연구와 교육 방법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다.

고전문학 교육에 대한 연구는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하는 세 가지 큰 차원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에 대한 논의가 공허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상의 범주를 정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왜’라는 철학적 배경이 없이, ‘무엇을’이라는 대상적 측면이 규명될 수 없으며, 양자의 해명 없이 ‘어떻게’라는 방법적인 면이 논의될 수 없다.

특히, 이 가운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하는 문제는 실제 수업 방식과 관련한 것으로, 교육학적 시각과 실제 현장 경험이 유용하게 응용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하는 문제일 것이다. 더구나 이 두 영역은 가르치는 목적에 따라 내용이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맞물려 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부분의 연구가 다른 부분의 연구 성과보다 빈약한 상태에 있다.²⁾

이런 연유로 하여, 본 논문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교육적 가치’의 문제다. 교육적 가치가 밝혀진다는 것은 곧 왜 가르치는가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고전문학을 가르치는 것은 높은 차원에서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인데, 각 교과과의 교육 목표는 ‘왜 특정 교과를 설정, 교육해야 하는가’에 관련된 일종의

2) 때문에, 최근 출간된 김대행 외, 『문학교육 원론』(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의 문제 의식은 중요하다고 본다. 이 책이 ‘원론’에 주목하는 까닭과 그 의미가, 이러한 점에서도 이해되는 바 있기 때문이다.

철학적 문제이다. 요컨대, 교과로서의 고전문학 교육 목표는 고전문학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에 관한 영역인 것이다. 이는 동시에 ‘어떻게’ 교육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규명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한 교과 목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고 효과적으로 진술되지 않는 한, 그 교과의 교육이 잘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고전시가 교육의 가치론적 접근

대체로 문학교육 과정은 보통 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 과정, 교양 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 과정, 전문 과정으로서의 문학교육 과정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으며, 이들은 인식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 과정을 보면, 고전문학 교육 과정의 경우, 주로 대학의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전문 과정을 제외하면, 보통 교육과 교양 교육이 뚜렷한 기능 분화를 보이고 있지는 못한 형편이다.

우리가 무엇을 ‘교육적 가치’라고 할 때, 그것은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실현 혹은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어떤 활동에서의 목표는 다음 활동이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이므로, 다시 그것이 수단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적 가치’라는 개념은 교육 활동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 최종적인 것 뿐만 아니라 수단적으로 생각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³⁾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고전문학 교과 교육을 왜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일차적으로 ‘고전문학 교과는 중요하거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는 것은 교육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하는 실체를 보여주려 한다면, 그러한 교육을 하는 목적과 관련하여 답을 살

3) 이돈희, 『교육철학 개론』 (교육과학사, 1983) pp. 120-122. 참조.

피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우리가 고전문학의 교육적 가치를 따지고자 한다면, 이는 곧 고전문학 교육의 목적을 살피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전문학 교육의 목적은 ‘문화 전달과 창조’라는 요소가 지속적으로 추구되었으며, 이를 좀더 자세히 표현하면, ‘문학 작품을 통하여 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창조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미적 감수성을 기르며,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문화를 고양하게 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한다’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고전시가 역시 고전문학 교육의 하위 범주로서 그 목적이 이와 유리될 수 없다.

문학을 바라보는 많은 시각이 있지만, 교육적 관심을 담지하면서 바라볼 때, 문학을 ‘가치있는 인간적 체험의 기록’⁵⁾이라고 보는 시각은 특기할 만 하다. 교육에서 가치가 가지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흔히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으로서 목적을 내재적으로 가진 것으로 이해되고, 때로는 단순히 무엇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때문에 교육 철학자들 가운데에는, 교육은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으로서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목적의 내재론과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목적의 외재론으로 논쟁을 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⁶⁾ 이에 의거해서 보면, 문학교육에서 가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필 수 있을 것 같다.

문학교육에서 가치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은 예술까지를 하나의 지식으로 파악하고, 지식의 내재적 가치를 본질적인 것으로 즉 하나

4)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제6차 국어교육 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의 교육 과정에서 고전문학 교육의 목적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내려온 것으로 이해된다. 자세한 변천 내용은 정준섭, 『국어과 교육 과정의 변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5)를 참고할 수 있다.

5) 최재서, 『문학원론』 (춘조사, 1964) p. 11. 참고. 한편 이 책에는 문학개론류로서는 특이하게, ‘문학의 교육적 가치’를 논하는 절(pp. 59-62)이 있는데, 이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김홍규, “최재서 연구”, 『문학과 역사적 인간』 (창작과 비평사, 1980) p. 288. p. 298. 참조.

6) 이돈희, 『교육철학 개론』 (교육과학사, 1983) pp. 124-139. 참조.

의 목적으로 보는 것이다.⁷⁾ 문학은 물론 문학교육에서 가치가 내재되어 있고, 그 가치가 자생력을 가진다는 점은 문학교육의 본질 가치를 증명해 주는 사항이다. 교육의 순환적인 자생성은 교육 목표 자체가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가치의 내재설은, 교육이란 여러 가지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온갖 목적에 봉사하는 한낱 도구일 따름이라고 생각하는 통속적인 교육관에 대하여, 교육의 본령을 지키고자 하는 이론으로서 일면 높이 평가받기도 한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여 교육의 내재적 가치, 즉 그 자체로서 가치있는 것이라는 주장은 교육이 제도적 맥락을 떠난 상태에서 그 가치를 논하게 되면 결코 그 논리를 성립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철학적 용어인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란, 외재적 가치(extrinsic value)를 수단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관련된 목적 혹은 목표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재적 가치는 외재적 가치가 있을 때 그것과 상대적으로 파악되는 가치이다. 교육이 내재적 가치만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이 궁극적 가치임을 뜻하는 것이 된다. 말하자면, 교육은 어떤 다른 것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만일 그렇다면, 교육은 아무런 활용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말과 같다. 그러나 만약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추구하면, 우리는 교육의 필요를 다른 차원 높은 가치와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육을 필요로 하는 매우 고답적인 가치와 연결지어 생각하면, 교육은 그것들에 대하여 결코 목적의 위치에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수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때문에 문학교육에서 가치 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하나는 가치를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로 나누어 생각하고, 본질적인 가치와 도구적인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시각이 된다.⁸⁾ 필자는 여기서 이러한 입장에

7) 성기산 역, M.A.B. Degenhardt, 『교육과 지식의 가치』 (문음사, 1992)

8) 이흥우 역, 피터스, 『윤리학과 교육』 (교육과학사, 1980) 한편, 이돈희는 피터스의 논의가 '선험적 정당화'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적

주목한다. 이런 입장이 본질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이외의 가치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전문학 교육의 의의를 포괄적으로 해명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족 문화의 전통 속에서 문화적 가치로서 존재하는 고전문학, 그것은 그 자체로서 교육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목적으로 그것을 학습하는 개체와의 관계에서 실제적으로 교육적 가치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교육적 가치는 객관적인 사회적 가치가 학습의 주체에 대하여 성장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관계에 있을 때 성립되는 것이다.⁹⁾

요컨대, 문학교육의 목적은 내재적이지만 구체적인 교육 활동의 목표는 그것이 목적을 실현하면서 달성되는 것이므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면서 동시에 교육 외적인 목적의 실현을 기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문학교육에는 외재적 목적이 없지만 구체적 교육 활동에는 항상 외재적 목적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고전문학 특히 고전시가 교육론에 접근할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고전시가가 가지고 있는 문학성을 학습자들이 느끼고 공감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의 방향이다. '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이라거나 '창조적인 체험' 그리고 '미적 감수성'이라는 말들이 이런 교육 방향을 지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론과 감상 교육으로 사실 전통적으로 문학교육이 목적으로 취해온 입장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고전문학 교육의 경우 작품과 작품을 감상하는 학습자 사이에 존재하는 짧은 역사적 거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극 주장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물론 피터스가 교육의 내재적 가치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나, 외재적 가치 즉 그 수단적 가치에 대해서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교육의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 철학자로 대표적인 이는 랭포오드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 과정은 이돈희, 『교육 정의론 (수정판)』 (교육과학사, 1999) pp. 318-327. 참조.

9) 이돈희, 『교육적 경험의 이해』 (교육과학사, 1993) pp. 19-21. 참조.

시각은 교육이란 인간의 문화적 가치 또는 인간의 학문적 연구 성과를 후대에 전해주는 것이라는 시각을 좁혀 바라보는 경향을 떨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교과를 배운다는 것은, 곧 그 교과와 관련된 학문의 연구 결과의 상당 부분을 알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문학교육도 교과로 존재한다면, 문학 연구의 결과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곧 학문적 성과로서 문학 지식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문학교육은 문학과 관련된 학문의 성과 즉 문학에 관한 지식을 가르친다는 논리도 이에 속한다. 문학 이론과 비평의 여러 갈래들, 작품을 분석하는 여러 방식들 그리고 문학사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을 알게 하는 것이 문학교육이라는 결론을 이끌 수도 있다.

우리는 문학 작품의 감상을 통해서 즉, 어떤 대상을 뜻 있는 정서의 통일적 표현으로 지각할 때, 거기서 심미적 가치를 느끼게 된다. 문학에서의 심미적 경험은 경험의 주체와 대상 사이의 상호 작용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특수한 지각 방식이며 경험이다. 이 같은 심미적 경험은 그 자체 본질적 가치, 좀더 자세히 말하여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그 자체의 기쁨이 된다. 그러나 심미적 가치는 동시에 다른 종류의 가치에 대하여 도구적 가치의 의미를 지닌다. 심미적 경험에 의하여 내면화된 정서와 이미지는 도덕적 가치·사회적 가치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¹⁰⁾ 이 점은 고전시가 교육론에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리라 여겨진다.

이처럼 생각하면, 고전시가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의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또 다른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실용적 문학교육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 현대인들이 왜 고전문학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하나의 구체적 답안을 낼 수 있다.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한다거나 '문학적 문화를 고양'한다는 말들이 이를 가리킨다. 이 입장은 아무래도 작품 자체의 의미보다는 문학의 수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정서적 태도 변화에 주목하게 된다. 이를 고전시가 교육의 효과에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10) 한명희, 『교육철학』 (배영사, 1983) pp. 201-203. 참조.

이러한 시각은 역사적으로 살피더라도 매우 뿌리깊은 것으로, 문학이 지니고 있는 흥미와 교훈성에 기대어 문학 작품을 읽힘으로써 목표하고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소설 자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거나 이를 읽힘으로써 역사책을 통해서 배워야 할 많은 것을 교육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소설의 효용성을 생각한 조선조 사대부들의 시각¹¹⁾도 이에 속한다. 문학교육이 국어교육에서 중시되어야 하는 이유의 하나도 여기에 있다. 문학이 삶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언어로 형상화되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문학의 교육은 필요한 것이며 중요한 것이다. 이처럼 고전시가를 포함한 고전문학 교육은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의 발현은 물론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계속 생성해 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고전문학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해 내는 작업이 문학 혹은 문학교육 연구자들의 몫이라면, 그러한 해석을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교사들의 몫이다.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교사인 경우에도 이러한 역할 분담은 있게 마련인데, 이런 입장에서 보면 교육 현장에서 고전문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¹²⁾, 항상 역사적 거리를 고려해야 하는 고전문학과 그 교육에 관한 지식의 주 수혜자는 학습자 이전에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태도가, 문학을 수용하는 학습자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교사는 학습자가

11) 조선조 사대부들의 소설 인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춘택, 『한국 고소설 비평사 연구』(고려대학교 박사 논문, 1992)를 참고할 수 있다. “17세기에 소설, 특히 국문소설이 규방여성들에게 두루 읽히면서 소설을 통한 규방여성에 대한 교육이 시도되었음은 소설이 사회적 조절 장치로 인식되면서 소설교육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소설을 통한 교육이었으며, 소설 자체에 대한 교육은 아니었다.” 김종철, “17세기 소설사의 전환과 소설교육론”, 『한국학보』 96집 (일지사, 1999·가을) p. 115.

12) 신재홍, “<원생몽유록>의 교육적 의의”, 『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집문당, 1994) p. 513. : 줄고, “언어와 예술 자료로서의 고전문학과 교육”, 『문학교육학』 4집 (한국문학교육학회 편, 태학사, 1999)의 관련 부분을 참고할 것. 이후 이 논문은 『문학교육의 새로운 구도와 실천』(태학사, 2000)에 재수록 되었음.

고전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적 지식과 태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을수록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 그 이상이라야 한다. 그러나 학습자의 경우, 작품과 세계가 맺고 있는 문화적 배경을 모두 알아야 할 의무는 사실 없는 것이다.¹³⁾

3. '고전시가' 교육과 고전시가에 '관한' 교육

문학 연구의 최종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논자에 따라 조금씩의 입장 차이는 있겠으나 필자의 경우, 특히 현재와 시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고전문학의 경우는 그 최종 목표가 문학사 서술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각 작품이나 작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특정 작품이나 작자에 대한 관심의 발로이겠으나, 이런 개별적 연구가 쌓여 이루어지는 문학사의 구성이 문학 연구의 최종 귀착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에 임한다고 할 때는, 그 사정이 문학 연구의 경우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문학교육은 문학적 실천의 한 양상이면서, 동시에 교육학 실천의 한 양상이기도 하다. 때문에 문학교육 과정의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된다. 이 중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물음에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문학교육의 제재가 되며, 이는 교과서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문학교육의 제재를 선정하는 일은, 해당되는 문학을 가르쳐야 하는 당위와 의의를 현재의 상황에서 늘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확보해 나아가야 한다. 문학 작품 자체는 그대로이지만,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사와 학습자는 항상 달라지는 것이다. 또 교사와 학습

13) 김풍기, "自然詩歌類의 역사적 층위와 학습목표의 설정", 『어문학보』 20집 (강원대학교 국어교육학과, 1997) pp. 132-133. : 우한용, "문학교육과정론의 지형도", 『문학교육과정론』 (삼지원, 1997) pp. 47-51. 참조.

자만이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도 항상 변화하므로, 문
학교육에서는 그러한 변인을 항상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문학
의 가치는 불변일 수 있으나, 문학의 교육적 가치는 항상 가변적일 수
있는 것이다.

고전문학이 현대문학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그들 사이에 존재
하는 ‘역사적 거리’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고전문학의 교육은, 작품 자체
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거리’를 무리하게 좁히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습자들에게 그 거리를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생각한다. 이런 점은 소설이나 시가나 마찬가지로 적용되지만, 특
히 고전시가 교육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이이(1536-1584)의 <고산구곡가>가 보여 주는 고양된 風流의 모습은
주목된다. 그가 노래하는 풍경은 다채로운 景物, 형상, 색채를 보여주며,
시적 정서는 매우 낙천적이다. 이에 “감흥이 고양되고 시상이 활달해서,
주희나 이황에게서는 볼 수 없는 기풍을 지닌다”¹⁴⁾는 평가를 충분히 수
용할 수 있다. 주희의 <무이구곡가>를 본 때 이루어졌다는 이이의 <고
산구곡가>가, 그 시적 정서에서 일정한 변별점을 가진다는 것은 그 주
목에 값하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

三曲은 어드미고 翠屏에 넘 퍼졌다
綠樹에 山鳥는 下上其音 흥는 적의
盤松이 愛淸風흥이 너름 景이 업새라.

四曲은 어드미고 松崖에 히 넘거다
潭心 岩影은 온갓 빗치 좀것세라
林泉이 갑도록 조흐니 興을 계워 흥노라.

七曲은 어드미고 楓岩에 秋色이 좇타
淸霜이 얹게 친이 絶壁이 錦繡로다
寒巖에 혼자 안자서 집을 닛고 잇노라.

14) 조동일, 『제3판 한국문학통사』 2권 (지식산업사, 1994)에서 이런 언급을 했다.

새가 지저귀는 곳에서 맑은 바람을 맞는 정경이나, ‘林泉’에 마음을 빼앗기고 興趣를 느끼는 모습, ‘錦繡같은 絶壁의 寒巖’에 홀로 앉아 느끼는 감흥은, 분명 江湖 自然의 순수함 속에서 느끼는 直接的 審美性의 발현이라 할 만 하다. 이처럼 이이의 작품에 등장하는 江湖 自然은 ‘순수한 自然’¹⁵⁾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江湖’는 自然을 통칭하는 관용어이면서 동시에 작자가 처한 공간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다. 江湖가 비록 주변에 自然을 배치함으로써 그 순수함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작자가 가지는 역사적 문맥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작자가 처한 江湖가 아무리 세상과 단절된 폐쇄된 공간이라고 해도 그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 실제로 그것은 철저히 현실과 이어져 있으며 나아가 현실을 보는 시각을 반영하여 상징화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순수함 이면에 숨어 있는 정치적인 의미, 이것이 우리가 교육을 통해 읽어야 하는 내용이다.

高山 九曲潭을 살롬이 물으든이
 誅茅 卜居하니 벗님네 다 오신다
 어줍어 武夷를 想象하고 學朱子를 하리라.

여기서 작자가 위치한 공간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산간 계곡이다. 이곳에 자신이 띠풀을 베어 집을 지으니, 마침내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하였다. 경치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은거하는 작자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그런데, 종장에서 우리는 은거하는 작자의 의도를 금방 이해할 수 있다. ‘武夷를 상상하고 朱子의 학문을 하겠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이의 <고산구곡가>는 朱子의 <武夷權歌>를 염두에 두고 지은 작품이다.¹⁶⁾ 때문에 <고산구곡가>의 江湖 自然은 自然 그 자체가

15)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自然’이란, 성취되지 못한 욕망이나 避世라는 관련항 속에서, 그 대척적 공간으로서 존재하는 江湖 自然과 구분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김대행, “이이론”, 『시조 유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6) 참조.

16) 이민홍, 『증보 사림과 문학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7 : 월인, 2000)에, 이

아니라, 성리학적 의미가 착색된 형태의 것이라 이해해야 한다.

九曲은 어드미고 文山에 歲暮커다
 奇巖 怪石이 눈 속에 못챌세라
 遊人은 오지 안이하고 볼 셋 업다 흐드라.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文山’은 실제의 山으로 해석될 수 없다. ‘奇巖 怪石’도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自然景物일 뿐이지만, 작자와 작품의 철학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學朱子의 대상이면서 학문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최종적인 경지가 된다. 눈 속의 ‘奇巖 怪石’은 장차 봄이 되어 눈이 녹으면, 그 자태를 드러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 않는 ‘遊人’들을 타이르며, 작가는 조용히 자신의 내면적 완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이의 시조에 나타나는 江湖는 심성 수양의 공간이면서, 작자가 추구하는 道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상이 된다.¹⁷⁾

따라서 우리가 보다 높은 수준의 고전시가 교육을 추구한다면, 작품의 문면에 대한 해석에서 출발하여, 그 이면에 잠재해 있는 이러한 道의 실질과 그 의미를, 학습자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작품과 관련된 사회적·문화적 요인, 환경 및 작자에 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이이의 시조 작품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고전시가는 현대의 문학 작품과는 달리, 작자의 철학적 배경이라든가, 시대 분위기의 고려라든가 하는 몇 가지 단계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문학사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수렴될 수 있다. 문학교육 특히 ‘문학에 관한 교육’은 주로 개별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통하여 수행된다. 이 때 개별 작품의 의미 분석에만 치중하다 보면,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문학사는 일정한 사관과 방법론을

에 대한 논의가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17) 김풍기, “自然詩歌類의 역사적 층위와 학습 목표의 설정”, 『어문학보』 20집 (강원대학교 국어교육학과, 1997) pp. 142-144. 참조.

가지고, 문학 작품과 작가 그리고 역사적 배경 등 문학의 흐름을 유기적 전체로 체계화한 것이다. 따라서 문학사는 단위 문학을 전체적인 체계 내에서 조망하는 안목을 길러 준다. 이런 점에서, 문학사는 역사 과정속의 치열한 삶의 총체적 형상화이다.¹⁸⁾ 작품간의 역사적 층위를 고려하지 않으면, 개별 작품의 해석에도 난점을 제공하는 고전시가 교육에 문학사적 관점이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학사는 역사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대상으로 현대의 삶을 재조명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데에서 의미를 가진다. 때문에 문학사의 대상 역시 과거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과거는 현재 우리에게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가져야 한다. 과거의 문학적 사실에 대한 무비판적인 나열을, 우리는 문학사라고 부를 수 없다. 이는 고전문학이 과거의 사실이면서, 또한 현재의 사실이라는 인식과도 동계를 이룬다. 사실 작품과 문학사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지니면서, 상호 작용을 계속해 왔다. 작품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만, 그것의 해석은 역사적 배경과 그 역사적 배경과 작품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문학사가들의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문학사는 작품의 존재를 완성시키고 그 위치를 자리 매김하며, 그리하여 자연히 작품 해석의 바탕이 된다.¹⁹⁾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고전문학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확정적이고 완벽한 문학사를 가질 수 있다면, 개별 작품을 해석하고 감상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절대적 가치를 지닌 문학사의 존재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우리는 전환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고전시가를 포함한 문학교육에서, 문학 작품의 올바른 해석과 감상을 위해 각 작품과 작가의 역사적 층위를 포함한 문학사적 인식이 필요하

18) 구인환 외, “문학교육과 문학사”, 『제3판 문학교육론』(삼지원, 1998) p. 361.

19) 류수열, 『문학사 교육의 위상과 성격』, 『고전문학과 교육』 1집 (청관 고전문학회 편, 태학사, 1999) 참조.

다는 점은 앞서 논술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그 문학사적 인식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의 완벽한 문학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론적으로, 고전문학 작품 해석의 절대적인 기준이 학습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학습자가 스스로 문학 작품의 올바른 해석과 감상을 위해 문학사를 '구성'하는 것이 된다. 물론 모든 학습자를 문학사가로 만들 수는 없으며, 필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학습자의 능동적 활동에 의거한 문학사의 '구성'이란 다음의 과정을 말한다. 즉 한 갈래의 흐름을 보여주는 사적 가치를 담지한 작품들의 비교적 고찰을 통해, 각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이 생겨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더불어 이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각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의 이해를 통해서, 각 작품들 간에 관통하고 있는 일반성을 이해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4. 고전시가를 '통한' 교육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고전시가를 '통한' 교육이란, 문학 작품의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문화적 혹은 실용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무엇을 '의도한다'는 말은 그 자체가 의도된 바 그것이 어떤 주어진 기준에 의하여 '가치 있음' 혹은 '바람직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생각하면, 교육은 의도적으로 어떤 가치를 성취하려는 일종의 인간 활동이므로 무슨 가치를 생활에서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개념이 해석되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교육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바, 그것을 흔히 '교육 목적' 혹은 '교육적 가치'라고 하는 바, 즉 우리는 교육 활동을 통하여 어떤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다.²⁰⁾

사실, 교육의 본질적 혹은 수단적 기능의 구별은 논리적 구분이지 실

20) 이돈희, 『교육철학 개론』 (교육과학사, 1983) p. 12. pp. 62-63. 참조.

제적 구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교육은 순수히 본질적 기능만을 하는 경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순수히 수단적 기능만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질적 기능이 수단적 기능보다 더 가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중요성은 반드시 그것에 논리적으로 내포된 의미와 기능만으로 평가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 교육의 가치는 그것의 수단적 기능을 통해서도 충분히 인식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에 의해서만 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될 수도 있다.²¹⁾

문학교육도 교육의 일종이므로, 그 가치의 논리적 정립은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왜 문학교육이 필요한가? 문학이 그 자체로 아무리 중요성을 외친다고 하더라도, 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성장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문학은 모르지만 문학교육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문학교육이 문학 자체의 논리뿐 아니라 문학외적 논리에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학교육의 기원 자체가 사회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문학 작품의 문학적 가치와 문학교육적 가치가 보편적, 항구적으로 결정된다는 견해를 그대로 따르면 문학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고민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즉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가치를 탐색하고 조직화하여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이러한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가치 개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²²⁾

이렇게 보면, 문학을 교육하는 근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는 필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²³⁾ 환언하면, 첫째는 문학

21) 이돈희, 『교육철학 개론』(교육과학사, 1983) pp. 153-159. 참조.

22) 김창원, “문학교육 과정의 구성 원리”, 『문학교육과정론』(삼지원, 1997) pp. 114-116. 참조.

23) 이 논문의 초고가 2001년 5월 25일 수원 라비들에서 개최된 국어교육학회 제16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을 때, 지정 토론자인 고영화(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생님을 비롯하여, 임칠성(전남대)·최지현(서원대)·황혜진(서울대) 선생님들의 우려 섞인 지적이 있었다. 논점을 정리하면, 결국 문학이 가치

자체의 교육 작용이고, 둘째는 문화로서의 문학이 갖는 교육 가능성이 다. 교육을 인간의 자아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첫째의 측면이 중시되고, 문화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둘째의 측면이 중시된다. 그러나 사실 이 둘은 서로 대립한다기 보다는 문학교육이란 하나의 현상의 양면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아와 세계의 상호 교섭 속에서 인간의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문학이 인간의 도덕적 삶을 변화시키고 감정이입을 통해 대리 경험의 세계를 전개하며, 자신과 타인을 새로운 시각에서 인식하게 하고 정서를 함양시킨다는 사실은²⁴⁾, 문학 행위 자체가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인간은 문학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세계를 보는 눈을 기르고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며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육이 인간의 가치로운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면, 문학 행위의 효용은 곧 교육의 효용과 동등한 것이라 인정할 수 있다.

문학 작품 자체가 삶의 총체성과 관련되어 있으니, 역으로 당대의 삶을 이루는 요소들인 정치·경제·문화 등의 이해는 문학 작품의 정확한 감상과 수용에 필수적일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학습의 대상으로 삼는 문학 작품은 당대 현실을 예술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문학교육을 통해 그 역사적 현실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문학교육은 단순 교과가 아니라, 결국 역사·정치·경제·윤리 등의 교과 학습과 상호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복합 교과 교육이 된다.²⁵⁾

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생태' 등의 현재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면 문제의 핵심을 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적 자체는 수긍되는 바 있으나, 필자의 경우, 문학의 본질적 가치를 논외로 하지 않았다는 점, 본문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듯이, 수단적이고 기능적인 가치를 도외시하면 문학 연구와 문학교육 연구의 변별이 어려워진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의 논의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삭제하지는 않았다. 이후, 이 문제를 포함하여 논문 심사 과정에서 익명의 세 분 선생님들의 지적도 있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24) 제임스 그리블 저·나병철 譯, 『문학교육론』 (문예출판사, 1987) p. 5.

필자는 <고산구곡가>의 경우, 학습자들의 '생태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고 일깨울 수 있는 작품군이라고 생각한다.²⁶⁾ 이런 인식은 앞서 제기했던 질문 즉 '왜 가르치는가' 하는 문제에도 일정한 정도의 대답을 더 붙여 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고전시가에서 自然을 소재로 한 작품들, 특히 여기서 주목하는 일련의 江湖詩歌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이런 교육적 가치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이가 말하는 自然은 인공을 가하지 않은 天地 자체와 함께, 그 天地의 萬化 내지 易의 양상과 특성까지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당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답게 그것을 理와 氣에 의하여, 이른바 본체론적으로 파악한다. 인간 역시 만물 가운데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自然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은 서로 근본에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사실 理氣論의 시각으로도, 자연이 그렇듯 인간 역시 理와 氣로써 이루어진 존재다.²⁷⁾

一曲은 어드미고 冠岩에 히 벗친다
平蕪에 니 거든이 遠近이 글림이로다
松間에 綠樽을 녹코 벗 온 양 보노라.

二曲은 어드미고 花岩에 春晚커다
碧波에 곱출 띄워 野外로 보내노라
살림이 勝地를 물은이 알게 혼들 엇더리.

25) 김대행 외, 『문학교육 원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p. 252-253. 참조.

26) 최근에 필자는 박혜숙, "시조의 생태미학", 『녹색평론』 42호 (대구 : 녹색평론사, 1998. 9-10)을 대하고, 고전시가에서 생태적 사유와 미의식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외로운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단지 박혜숙의 글에는 고전시가의 생태적 사유를 강조한 면이 부각되며, 필자는 이를 교육의 차원에까지 확장하려는 의도를 가진다는 점은 첨부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 외에, 고전문학이 가지는 문화론적 가치 특히 생태적 가치에 주목한 연구로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가 있다.

27) 자세한 내용은 윤사순, "율곡 이이의 자연관", 『조선시대 성리학의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8) pp. 102-111.을 참고할 것.

五曲은 어드미고 隱屏이 보기 조화
 水邊 精舍는 瀟灑함도 ㄴ이 업다
 이 中에 講學도 홀연이와 詠月 吟風 ㅎ올이라.

六曲은 어드미고 釣峽에 물이 넘다
 나와 고기와 ㄴ이아 더욱 ㅎ이는고
 黃昏에 낙대를 메고 帶月歸를 ㅎ노라.

八曲은 어드미고 琴灘에 돌이 붉다
 玉軫 金徽로 數三曲을 노론말이
 古調를 알 리 업싼이 혼자 ㅎ여 ㅎ노라.

<고산구곡가>에서도 이런 모습은 비교적 쉽게 발견된다. 一曲에서는 江湖를 벗으로 대하는 작자의 모습, 六曲에서는 물고기와 작자가 江湖의 아름다움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의식의 편린이 엿보인다. 二曲·五曲·八曲에서도 江湖 自然이 보여주는 맑고 밝은 아름다운 美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 준다. 그리고 그의 작품에서는 단순한 경관의 美感의 표현으로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講學’하고 ‘詠月 吟風’하는 인간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이 자연과 合一할 때 느끼는 감정을 문학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고산구곡가>의 작자가 보여주는 평안함과 즐거움은 곧 ‘天人合一’에 대한 분명한 체험적 증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 문제를 고려해 보면, 지금이야말로 자연이 결코 인간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특히 생명을 보존하는 데 서로 불가분의 유대관계라는 사실에 대한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고산구곡가>에서 뚜렷이 찾을 수 있는 자연관과 생명 존중 사상은 우선 이러한 각성 촉발의 유효한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고전시가 특히 江湖詩歌의 주 창작 담당층인 士大夫들은 물욕을 줄이고 물질 향유를 절제있게 하고 삶의 무게 중심을 정신적 가치의 향유에 둔 삶의 자세, 곧 ‘安貧樂道’에 두었다. 고전시가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인 이 ‘安貧樂道’의 사상에는

단순히 개인 차원 욕망의 좌절에 대한 위안의 철학을 넘어서, 인류 공동체의 삶의 항구적 지속을 위한 일종의 문명적 전략이 깃들여 있다. 따라서 현대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고전시가의 ‘安貧樂道’ 사상과 그것이 표상하는 동양의 인문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다.²⁸⁾

士大夫의 江湖詩歌에서 ‘생태학적 사유’를 찾아내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시키는 문제는, 고전 ‘작품’이나 작품에 ‘관한’ 교육이기보다는, 고전 작품을 ‘통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많은 고전시가 작품들은 사물을 보는 또 다른 하나의 관점, 즉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지 않고 내면적으로 깊이 결부시켜 파악하는 관점을 일깨워 준다. 新儒學의 士大夫들은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연에 맡기는 도교의 관심과는 구별되게, 자연에 친화화하면서도 주체를 중요시 여기는 사고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고산 구곡가>를 포함한 많은 고전시가 작품들이 이를 증거한다.

문학을 포함한 예술교육은 예술을 통한 ‘사람됨의 교육’이다. 예술교육은 교육을 위한 예술, 예술을 통한 교육이며 하나의 예술교육이다. 여기서 예술이란 말을 문화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해도 논리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국어교육은 국어에 관한 지식만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표현과 이해를 통하여 ‘사람됨을 가르치는 교육’²⁹⁾이라 할 수 있겠다. 국어를 문학으로 바꾸어도 같은 논리가 성립한다. 오늘날의 시인 작가들이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처럼, 몇 세기 전의 문인들도 마찬가지로의 삶의 짐을 그 시대의 화법으로 썼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고 그 문제가 현재 우리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하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교육적 체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고전시가 교육의 내용도 이런 점에 유의하며 채워져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28) 이동환, “하나의 모색을 위하여”, 『중용·대학』 (나남, 2000)의 서문과, “좌담 : 문명의 전환과 국문학 연구”, 『민족문화사연구』 10집 (민족문화사연구소, 1997) pp. 30-33. 참조.

29) 김문환, 『문화교육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5. 결론

그 동안 우리의 관련학계에서 문학교육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연구 성과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을 많이 찾아낼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기존 연구의 검토 과정에서 느껴지는 미미함의 상당한 원인, 문학교육론의 기본적인 틀 자체가 너무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교육’은 그것이 비록 학문적인 언급의 대상이 되더라도, 항상 실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교육론’에 대한 기본적 전제이다. 현재 시점과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고전문학 교육론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고전문학 교육이 훈고 주석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며, 당대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며, 오늘의 삶을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문제는 이를 구체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론의 문제일 것이다. 때문에 고전시가를 포함한 고전문학이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은 오히려 당연하다 하겠으나, 교육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에는 이외에 도구적이고 외재적인 가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고전시가 교육을 대하는 두 가지 가능한 시각을 제시하였다. 고전시가 교육론은, 고전 ‘작품’의 교육이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이는 ‘문학과 문학에 관한 교육’을 중시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겠다. 더불어 여기서는 ‘교육적 가치’라는 문제가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적 시각에서 볼 때, 고전 작품을 ‘통한’ 교육에도 관심이 두어져야 함을 구체적으로 보이고자 노력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 함의를 끌어낼 수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음 과제는 이런 문제 의식을 구체적인 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각 작가와 작품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의 구체적인 모습은

교육 과정을 통해 드러나므로, 이 문제는 상당히 실용적인 의미를 띠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고전문학 교육은, 고전문학 자료의 특성과 그 교육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여기서 생각하는 필자의 고전문학 교육에 대한 연구가 상정하는 우선적 수용자는, 학습자가 아니라, 학습자들에게 고전문학 교육의 가치를 일깨워 주어야 하는 국어과 교사들과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예비 교사들이 된다.

<초록>

고전시가 교육의 가치론적 접근

: 이이(1536-1584)의 <고산구곡가>를 예로 하여

한 창 훈

본 논문의 목적은 고전시가 교육을 가치론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그것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교육방법론을 제시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 논의를 위해, 여기에서는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이이(1536-1584)의 <고산구곡가>를 예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연유로 하여, 본 논문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영역은 '교육적 가치론'이 된다. 교육적 가치가 밝혀진다는 것은 곧 왜 가르치는가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고전시가 교육을 대하는 두 가지 가능한 시각을 제시하였다. 고전시가 교육론은, 고전 '작품'의 교육이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이는 '문학과 문학에 관한 교육'을 중시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서는 '교육적 가치'라는 문제가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적 시각에서 볼 때, 고전 작품을 '통한' 교육에도 관심이 두어져야 함을 구체적으로 보이게 노력했다.

<고산구곡가>의 고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보다 높은 수준의 고전시가 교육을 추구한다면, 작품의 문면에 대한 해석에서 출발하여, 그 이면에 잠재해 있는 문학적 道의 실질과 그 의미를, 학습자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작품과 관련된 사회적·문화적 요인, 환경 및 작자에 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이처럼, 고전시가는 현대의 문학 작품과는 달리, 작자의 철학적 배경이라든가, 시대 분위기의 고려라든가 하는 몇 가지 단계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문학사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수렴될 수 있다.

한편, <고산구곡가>에서 뚜렷이 찾을 수 있는 자연관과 생명 존중

사상은 현대인의 각성 촉발의 유효한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고전시가 특히 江湖詩歌의 주 창작 담당층인 士大夫들은 물욕을 줄이고 물질 향유를 절제있게 하고 삶의 무게 중심을 정신적 가치의 향유에 둔 삶의 자세, 곧 ‘安貧樂道’에 두었다. 고전시가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인 이 ‘安貧樂道’의 사상에는 단순히 개인 차원 욕망의 좌절에 대한 위안의 철학을 넘어서, 인류 공동체의 삶의 항구적 지속을 위한 일종의 문명적 전략이 깃들어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음 과제는 이런 문제 의식을 구체적인 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각 작가와 작품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의 구체적인 모습은 교육 과정을 통해 드러나므로, 이 문제는 상당히 실용적인 의미를 띠는 것이다.

【핵심어】 문학교육, 고전시가 교육, 문학사 교육, 교육 과정, 교육적 가치, 해석, 이해, 교육적 전략.

<Abstract>

Axiological Approaching on the Classic Poetry Education

: For example the Yi I(1536~1584)'s <Gosangoogokga>

Han, Chang-hun

Today, it is clear that the classic literature education should not focus on the exegesis and the commentary but understand the emotion and the life of that time. And also it should contribute to understand the present life. The important thing is the problem of the Methodology that how it could be realized in the actual education. Including the classic poetry, the classic literature contains the essential and immanent values but in the educational aspect, we need the considerations on the implemental and external values.

In this point, this thesis proposes the two kinds of a point of view on the classic poetry education. The classic poetry education should be focused on the classic work itself. It is an attitude to be important the literature and the education on the literature. Also it is mentioned that the educational value is important. In the educational point of view, this thesis tried to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he education through the classic works.

The idealistic classic literature education could be carried in effect by the teachers who knew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the educational value of the classic literature. So the first object who the research on classic literature education could assume is not the students but the teachers and the preliminary teachers.

【Key word】 the classic literature education, the educational value,
the education through the classic works.